

동향

August 2026 No.3

인텔리전트(Intelligent) 글래스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부연 부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

인텔리전트(Intelligent) 글래스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부연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 byjung@kisdi.re.kr

요약

-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AI 글래스가 AI 혁명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음
 - * Omdia(2026.3)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AI 글래스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322% 성장한 870만 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6년 출하량은 1,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최근 성장이 둔화되었던 확장 현실(XR)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XR 글래스가 가벼운 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 컴퓨팅 등의 강점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음
 - * Omdia(2026.6.16)에 따르면 전 세계 XR 헤드셋 출하량은 2026년에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나 XR 글래스 출하량은 2026년에 90만 대로 전년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3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요 사업자 현황은 메타가 자체 AI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접목해 AI 글래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국업체들이 2위권을 유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구글과 협력해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 Omdia(2026.3.5)에 따르면 2025년 출하량 기준 메타가 740만 대, 글로벌 점유율 85.2%로 1위, 중국은 95만 대를 기록하면서 2위권을 유지
- 향후 인텔리전트 글래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확장, 전산업으로의 확산, 하드웨어 기술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제도 개선 필요

01 개요

- 최근 스마트폰에 이어 차세대 모바일 디바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AI 글래스가 AI 혁명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음
 - 초기 개발된 베이직 글래스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 기능, 가격 등의 한계로 대중화가 지연되었지만 최근 AI 글래스는 멀티모달 AI 기술을 포함한 기술적 향상, 사용 편리성, 활용 기능 확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메타의 AI 글래스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로 판매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다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7월에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AI 글래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성장이 둔화되었던 확장 현실(XR) 디바이스 시장에서도 XR 글래스가 가벼운 무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 컴퓨팅 등의 강점으로 인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더욱 인텔리전트(Intelligent)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인텔리전트 글래스의 분류 및 시장 현황, 사업체 동향, 시사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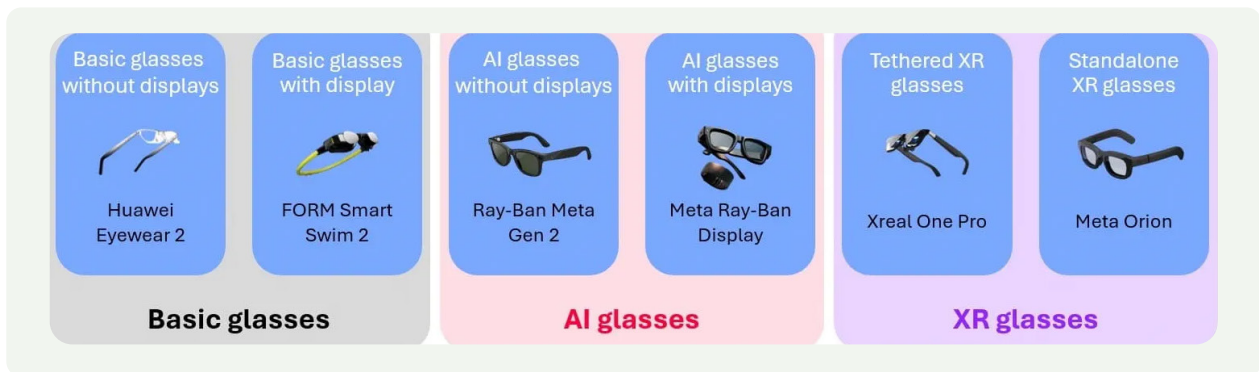
02 인텔리전트 글래스 분류 및 시장 현황

I 인텔리전트 글래스의 분류

- 인텔리전트(Intelligent) 글래스는 단순 오디오 기능과 시각 출력 등을 활용한 베이직 글래스에서 생성형 AI, AI 비서 등의 음성 인식이 장착된 AI 글래스로 발전
 - 점진적으로 전용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글래스 보급이 확대되고 일부 제품에서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확장 현실(XR)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XR 글래스로 변모하고 있음

- 지능형 글래스의 분류¹는 제품 특징이 매우 다양해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나 기존 제품, 개발 중인 기기, 향후 예상되는 발전 사항을 기반으로 구분함
 - (베이직 글래스) 일반적으로 AI 기능이나 공간 컴퓨팅 기능 없이 오디오 기능이나 간단한 시각 출력만 제공하는 디바이스로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존재 여부에 따라 기능적 차이 존재
 - (AI 글래스) 음성 상호 작용, 컴퓨터 비전, 상황 인식 등 다양한 AI 기능을 통합하여 베이직 글래스의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전용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시각적 효과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XR 글래스) 단순 디스플레이가 아닌 완전한 몰입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공간 컴퓨팅에 중점을 둔 디바이스로 자체 배터리 보유 여부 또는 외부 디바이스 의존도에 의해 유선형, 독립형으로 구분

그림 1 | 인텔리전트 글래스의 분류



자료 : Omdia(2025.5.6.)

AI 글래스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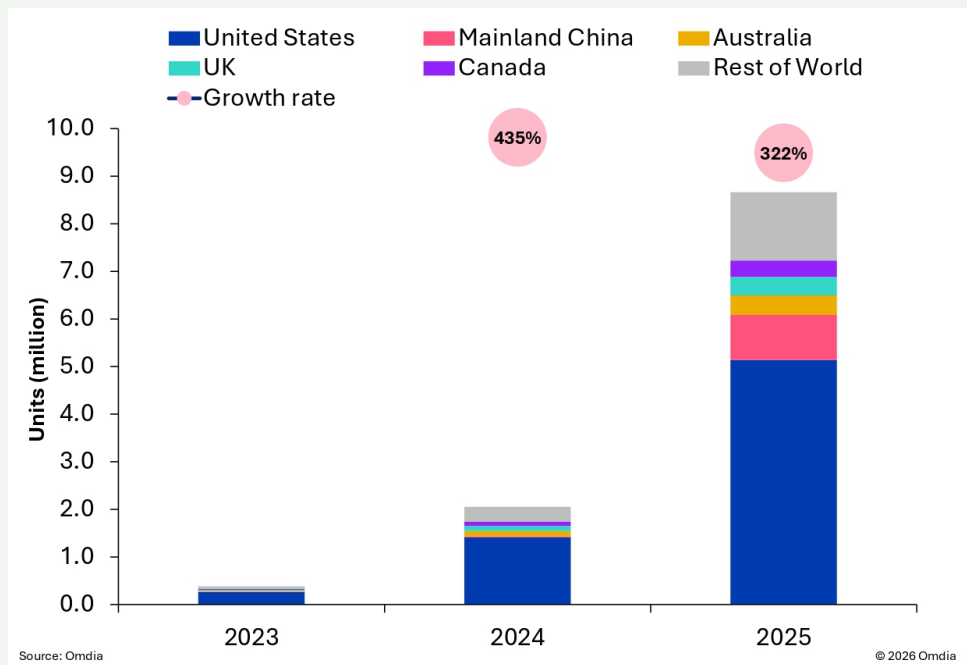
- Omdia(2026.3.5)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AI 글래스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32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87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6년 출하량은 1,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지역별) 2025년 기준 북미가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면서 1위 기록, 중국은 전체 시장의 10.9%를 차지하면서 2위권 유지

1 Omdia(206.5.6)의 Intelligent Headwear 분류 체계 중 글래스 형태의 디바이스만 구분해 분류

- 메타는 전용 디스플레이가 존재하지 않는 오클리 메타와 2세대 레이밴 메타 등 AI 글래스의 판매 호조로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2025년 기준 출하량이 740만 대, 글로벌 점유율 85.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은 메타가 직접 진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샤오미, 로키드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제품을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해 급성장 중이며, 2025년 기준 출하량 95만 대를 기록하면서 2위권을 유지
- (제품 유형별) 현재 시장의 90% 이상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AI 글래스의 시장 점유율이 2024년 3.3%에서 2025년 8.4%(출하량 기준 73만 대)로 확대되면서 향후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메타의 레이밴 디스플레이 글래스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하여 2025년 기준 8만 4천 대 출하
- 하지만 디스플레이 탑재 AI 글래스 시장은 로키드, 이븐 리얼리티스,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면서 전체의 시장의 71%를 차지

I 그림 2 | 글로벌 AI 글래스의 시장 현황

(단위:백만 대)



자료 : Omdia(2026.3.5)

I XR 글래스의 시장 현황

- 확장 현실(XR) 헤드셋 시장은 여전히 독립형 XR 헤드셋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자 수요 감소와 더욱 가벼운 형태의 기기와의 경쟁 심화에 직면하면서 향후 XR 글래스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Omdia(2026.6.16.)에 따르면 전 세계 XR 헤드셋 출하량은 2026년에 12% 감소한 620만 대에서 2027년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650만 대로 다시 성장세로 전환
 - 메타퀘스트3와 애플 비전 프로 등을 포함한 독립형 XR 헤드셋 시장은 2026년 전년 대비 출하량이 15% 감소한 470만 대를 기록했고 2027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레이네오와 엑스리얼 같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는 XR 글래스 출하량은 2026년에 90만 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여 3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현재 XR 글래스 출하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착용의 편리성, 가격, 다양한 기능 등으로 인해 XR 글래스의 수요를 촉진하고 향후 더욱 슬림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XR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03 주요 사업자 동향

I 북미

- (메타) 자체 AI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을 접목해 AI 글래스 시장 선도
 - 2021년 레이밴과 협업해 1세대 베이직 글래스를 선보였고 2023년 메타 AI를 탑재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포함해 각종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2세대 레이밴 메타, 2025년에는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오클리 메타를 출시해 AI 글래스 시장을 선도
 - 2025년 9월 옴니비전의 LCoS(Liquid Crystal on Silicon) 모듈을 오른쪽 디스플레이에 장착하고 손목 착용형 신경 인터페이스인 뉴럴 밴드(Meta Neural Band)가 포함된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를 출시
 - 2024년 넓은 시야각을 확보해 XR 글래스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 오리온의 시제품을 공개했으나 정식 출시는 미정

-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5월 25일 레이벤 메타, 오클리 메타를 백화점, 면세점, 안경원 등에 정식 출시했고 7월 22일에는 국내 통신 3사와 연합해 레이벤 메타를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 진출 본격화

I 중국²

- (레이네오) 디스플레이, 독립형 실행 능력, 확장 현실(XR) 기능까지 수행 가능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가격
 - 2023년에 출시한 RayNeo X2과 양안의 풀컬러 마이크로 LED, 스마트폰 없이 운영 가능한 독립형 운영체제, AR 네비게이션 등 혁신적인 기술력 보유
 - 2025년에 출시한 RayNeo X3 Pro는 구글 제미니 AI 기반 AI 비서, 듀얼 카메라, 공간 인식(SLAM :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탑재해 진정한 XR 글래스로 업그레이드되었으나 높은 가격이 단점
- (엑스리얼) 게임, 영상 중심의 AR 디바이스에서 XR 글래스로 발전
 - 2022년 출시된 엑스리얼 에어 시리즈는 안경 형태이지만 카메라 없이 게임이나 영상 시청을 위한 AR 디바이스로 시작해 2024년 독립적인 AR 글래스 형태인 엑스리얼 원 프로를 출시
 - 2026년에는 구글과 협업을 통해 엑스리얼 아우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제미니 AI를 탑재한 XR 글래스를 선보일 예정
- (로키드) 초기 AR 디바이스에서 실생활형 AI 글래스 중심으로 변모
 - 2021년부터 로키드 에어, 맥스 등 AR 기반 디바이스로 시작해 2024년에 AI 기능이 포함된 로키드 글래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AI 글래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대중적인 기능과 판매 확장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 (기타) 기존 자사 제품과의 생태계 연결성 확대
 - (샤오미) 2025년 출시된 샤오미 AI 글래스는 자체 AI 음성 비서(XiaoAI) 등을 활용해 번역, 결제, 스트리밍, 스마트홈 제어를 수행하면서 제품 연결성 확대

2 《아이티조선》(2026.4.22), “중국 스마트 글래스 5대 브랜드와 한국의 과제”. 참조

- (화웨이) 2023년 출시된 아이웨어 2는 오디오 중심의 베이직 클래스였으나 2026년 출시된 화웨이 AI 클래스는 자체 개발한 하모니 OS, AI 음성 비서 셀리아(Celia) 등을 탑재해 서비스 연결성과 자사의 제품 생태계 연결성 우수

I 국내³

- (삼성전자) 메타 AI 클래스 독주 견제와 기존 자사 제품과의 생태계 연결성 확대
 - 삼성전자는 구글과의 협업으로 2026년 5월 구글 개발자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XR’ 기반 AI 클래스 2종과 7월 ‘갤럭시 언팩 2026’에서 추가 2종 공개
 - 삼성전자는 7월 행사에서 AI 클래스를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라고 명하고 무게, 착용감,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카메라, 센서, 마이크, 스피커와 퀄컴 스냅드래곤 AR1 젠1(Gen1), 9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등의 부품을 탑재
 - 글로벌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워비파커’와 협업해 디자인을 개발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제미니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⁴하면서 메타 AI 클래스의 독주 체제를 견제하고 자사 제품과의 연결성 확대 예상

04 시사점

- 향후 인텔리전트 클래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확장, 전산업으로의 확산, 하드웨어 기술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제도 개선 필요
- (산업 생태계) 향후 인텔리전트 클래스 시장은 독립형 하드웨어보다는 생태계의 확장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메타(Meta)는 독립적 생태계 전략에도 지속적인 투자와 AR 디바이스 개발 경험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3 《ZDNET Korea》(2026.7.22), “삼성전자, AI 클래스 디자인 2종 추가 공개, 연내 출시”.

4 《연합뉴스》(2026.5.20), “삼성, 첫 AI 스마트클래스 공개…메타 독주 시장 흔들다”.

- 향후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통해 한국, 중국 업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플랫폼의 개방성 정도와 스마트폰, 서비스, AI 에이전트와 연결해 폭넓은 디바이스 생태계를 통합할 수 있는 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산업 확산)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보급 확대와 핸즈프리의 강점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면서 인텔리전트 글래스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
 - 인텔리전트 글래스는 핸즈프리의 강점으로 인해 게임나 교육 외에도 제조업, 물류창고, 택배, 의료(수술),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스마트폰,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전반에 걸쳐 AI 기능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적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 글래스만의 명확하고 차별화된 유용성 및 콘텐츠 확보 중요
- (기술 개선) 전력 효율성, 배터리 수명, 디스플레이 기술, 상호 작용 및 처리 시스템 통합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 과제도 다수 존재
 - 시각 디스플레이와 상호 작용 시스템, 고성능 SoC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용 시간 연장을 위한 저전력 배터리 기술 개선 등이 요구됨
-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문제, 부정행위 확대 등은 여전히 성장 제한 요인임
 - 현재 촬영 중임을 알리는 LED 표시가 있지만 불법 촬영, 같은 공간의 동의없는 촬영이 발생, AI 학습 및 품질 개선 과정에서 촬영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생성형 AI와 결합된 AI 글래스를 활용한 학교 시험, 자격시험 등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EU AI법(AI Act) 등을 활용해 AI 글래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유럽 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와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2026년 스마트 안경 카메라에 촬영되는 주변 사람들은 촬영에 동의 관련 문제에 대한 전담 조사를 시작했으며, EDPB는 2026년 여름에 스마트 글래스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⁵

5 GDPR LOCAL(2026.6.10.), “Smart Glasses and GDPR: Why Europe Is Cracking Down on Camera-Equipped Eyewear”.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5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하는 등의 사전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나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6.5.19),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아이티조선》(2026.4.22), “중국 스마트 글래스 5대 브랜드와 한국의 과제”.

《연합뉴스》(2026.5.20), “삼성, 첫 AI 스마트글래스 공개…메타 독주 시장 흔들다”.

《ZDNET Korea》(2026.7.22), “삼성전자, AI 글래스 디자인 2종 추가 공개, 연내 출시”.

Omdia(2026.3.5.). “Omdia: Global AI glasses shipments reach 8.7 million units with Mainland China emerging as the fastest-growing market”.

Omdia(2026.5.6.). “From AI glasses to XR: defining the future of intelligent headwear”.

Omdia(2026.6.16.). “Omdia: XR headwear market set for growth from 2027, as industry attention shifts from headsets to glasses”.

GDPR LOCAL(2026.6.10.), “Smart Glasses and GDPR: Why Europe Is Cracking Down on Camera-Equipped Eyewear”.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